

## 〈거시경제〉

# 내수 여건의 악화 지속

이태열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민주홍 · 현대경제연구원, 주임연구원

### 소비 불황 지속 전망

1998년 1/4분기 민간 소비는 -10.3%라는 유례없는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4/4분기의 -1.0%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과 국가 경제의 모라토리엄 위기라는 극단적인 상황 등 외환 위기 여파는 1997년 12월~98년 2월 사이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분기에 걸쳐 민간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최근 이러한 외환 위기 국면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대외 부채의 상황 기간 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국내 소비 회복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왜냐하면

구조 조정이라는 또 다른 요인에 의해 국내 소비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1980년의 -0.5%가 유일하다. 그러나 1998년의 소비는 이보다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질 임금의 큰 폭 감소이다. 1998년은 경제 개발이 시작된 이후 명목 임금이 감소한 유일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도 연간 8%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질 임금은 두자리수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질 구매력의 측면에서 볼 때, 명목 임금 상승률 23.4%에 물가 상승률 28.8%로 실질 임금이 약 4.4% 감소했던 1980년보다도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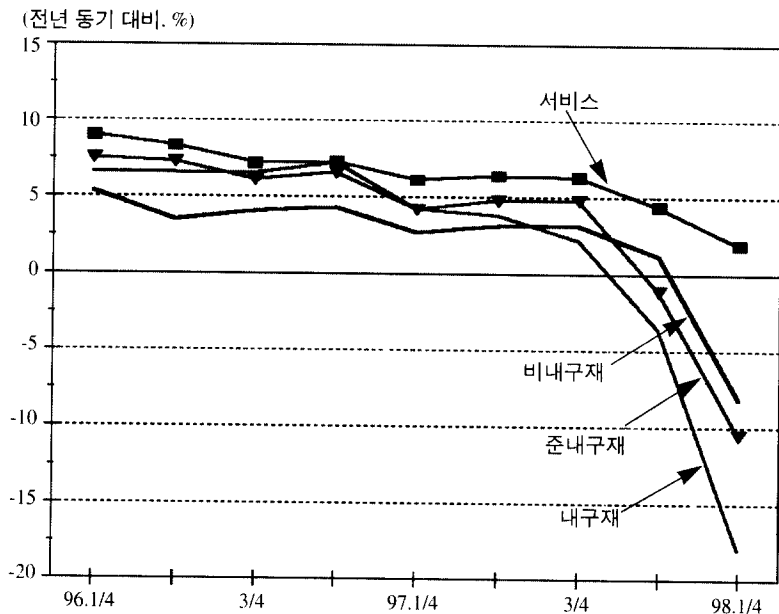
년의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심각한 고용 불안이다. 1998년 실업률은 연평균 6.7%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980년 당시의 실업률 5.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당초 외환 위기에 따른 신용 경색이 초래한 대규모 기업 파산으로 크게 증가했던 실업은 이후에도 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구조 조정의 여파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6·4지방선거나 실업률 변화의

계절성 등으로 일시적인 변동은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고용 불안의 심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불안 추세는 199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기에 민감한 내구재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내구재는 비내구재나 서비스와는 달리 제품의 교체 시기를 늦춤으로써 소비 지출을 줄이기 용이하기 때문에, 경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1998년 1/4분기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38.5%로 나타나 준

〈그림 1〉 가계 소비 형태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내구재(-18.0), 비내구재(-8.2%), 서비스(1.9%)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1980년에도 내구재 소비 지출은 18.0%의 감소를 기록한 적이 있다. 문제는 1998년에 내구재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데 있다. 1980년 당시 전체 가계 소비에 대한 내구재의 비중은 불과 2.7%(1990년 불변 가격 기준)에 그쳤으나 1997년의 경우 11.1%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1/4분기의 형태별 소비 증가율이 1980년 1/4분기에 나타났을 경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998년 1/4분기의 -10.3%보다 3%p 높은 수준인 약 -7.3%로 나타난다. 결국 내구재 소비 비중의 확대는 극심한 불황기인 1998년의 소비 위축을 더욱 심하게 할 것이다.

1998년 민간 소비 지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소비 증가율은 1/4분기에 비해 회복되어가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1/4분기 중에 나타난 소비 감소가 모라토리엄 위기라는 극박한 상황에서 초래된 과잉 반응의 측면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4분기부터는 외환 위기 국면이 진정됨에 따라 소비가 다소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는 물가 불안이 1/4분기보다는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율의 하향 안정화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물가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반기에도 이어져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분석을 종합할 때, 1998년 상반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9.9%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다 하반기는 -7.0% 수준까지 소폭 회복되어 연평균 -8.4% 전후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하반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지출은 유례없는 침체를 기록할 전망이다.

### 투자 위축 사상 최대폭으로 장기화

국내 설비 투자가 지속되는 위축 요인에 더해 IMF 구제금융의 과급 효과가 가세되면서 2년 연속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투자 집행 일정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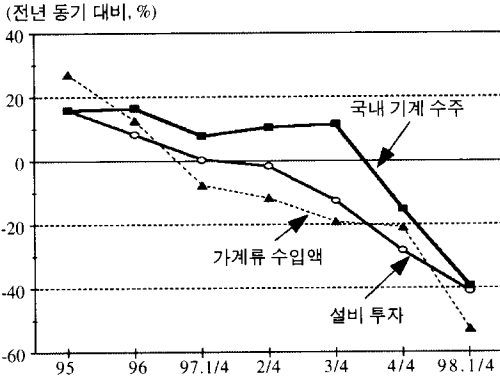
1994년과 1995년에 설비 능력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었고, 중화학 장치 산업의 대형 설비 투자가 1996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마무리된 요인이 있다. 이에 더해 1997년 이후로 주력 업종들의 성장 위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고 재고가 누적되면서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고 생산 감축이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IMF 구제금융 사태가 도래하면서 설비 투자는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고회율·고금리·저주가로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이 진행되어 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자금 운용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또한 경기 침체 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 부도 및 휴폐업의 속출이 이루어지는 한편, 고금리 및 금융 경색, 환율 폭등에 따른 필수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가격의 급등 등이 복합 작용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극도의 위축 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즉 국내 설비 투자는 1997년 1/4분기부터 감소세가 가속되면서 진행되다가 4/4분기에는 28.2%나 감소하였

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1/4분기에 설비 투자가 40.7%나 감소하면서 투자 규모가 1990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1989년 수준으로 급감하기에 이르렀으며 선행지표인 기계 수주액의 감소폭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건설 투자도 1997년부터 민간 제조업 투자의 큰 폭 감소세와 주택 건설의 감축에 더해 공공 부문의 건설 수주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3% 수준을 밑도는 정체를 지속해왔다. 그러던 것이 1997년 말 IMF체제 진입을 전후로 실물과 금융 부문의 복합 불황 현상이 초래되면서 건설 부문도 급속히 냉각되었다. 즉, 1998년 들어서는 건설 투자가 -7%를 하회하는 감소세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의 감소세가 지속적인 확대를 보이고 건축 허가 면적도 크게 감소하여 향후의 건설 투자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건설 업체의 높은 부채 비율 및 현재의 금융 경색에 따른 건설 업체의 부도 급증, 부동산 시장의 침체세 지속을 고려할 때 건설 투자의 하락세는 장기화될

〈그림 2〉 설비 투자 관련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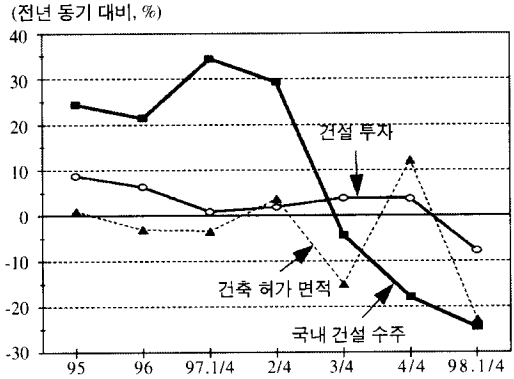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1998년 하반기에도 국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과도한 기업 부채, 높은 이자율의 지속, 고환율에 따른 높은 수입 자본재 가격 등에 의하여 설비 투자는 내내 급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별로는 1997년 하반기의 큰 폭 감소에 대한 지표 상의 상대적 영향과 국내 금융 시장 및 외환 시장이 다소간의 안정세를 회복함으로써 상반기의 감소폭보다는 다소 낮게 나와 상반기 -39% 내외, 하반기 -29% 내외로 연간으로는 -34.5% 수준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투자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림 3〉 건설 투자 관련 지표 추이



SOC 투자 축소 및 금융 경색 등에 의하여 상반기에 -16% 내외의 감소에서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26% 이상으로 더욱 확대되면서 연간 -21.8% 수준까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불가피한 국내 경기와 임금 감축·물가 급등에 따른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 등 여러 가지로 제약되어 있어 향후 당분간은 부양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공적인 금융 산업의 개편과 금융 경색의 완화, 고금리 지속 여부가 향후 건설 산업의 향방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나, 국내 건설 업체들의 부채 비율이 500%를 넘고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최소한 1999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 건설 투자는 더욱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 외환 위기 국면의 진정에 따라 물가 안정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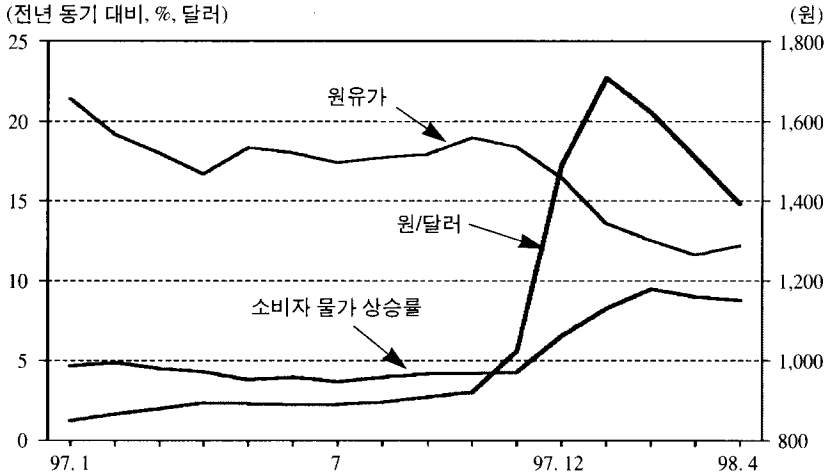
외환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물가 폭등이다. 외환 유동성의 부족은 곧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의 불안을 야기한다. 1997년 3/4분기 달러당 900 원대에 머물던 환율은 외환 위기 여파로 1998년 1~2월 중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극심한 불안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수입물가지수도 1998년 1월에는 전년 동월비 57.7%나 상승하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97년 11월 전년 동월비 4.3%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불과 3개월 후인 1998년 2월에는 9.5%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물가는 급속히 안정 기조

를 보이고 있다. 우선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1997년 11월 18 달러대(Dubai산)에 머물던 원유가가 1998년 4월에는 13 달러대까지 급락하면서 수입 물가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에 3월부터는 환율까지 본격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물가도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하였다. 3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0%로 하락하였으며 이어 4월에는 8.8%로 하락하였다. 생산자 물가도 3월의 전년 동월비 17.7%에서 4월에는 17.5%로 하락하였다.

1998년 물가 추이를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 공공 요금, 집세가 될 것이다. 첫째, 극심한 물가 불안의 근원적 원인이 되었던 환율의 경우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1,300 원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물가 사정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제 원자재 가격도 1998년 중에는 안정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가의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극심한 수요 위축이 지속될 전망

〈그림 4〉 소비자 물가·환율·원유가 추이



주: 원유가는 Dubai산 기준 월평균 달러이고,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서울 외환 시장 가격)임.

이어서 1998년중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환율과 유가 등 물가와 관련된 향후 여건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공공 요금의 인상 가능성이다. 정부는 물가의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과 공공 기업의 구조 조정 유도를 위해 공공 요금을 동결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아직도 공공 요금 인상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부족한 세수 확대를 위한 간접세 인상과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위해서 관련 공공 요금을 인상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 요금의 인상은 정부가 이

미 크게 올라있는 물가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상이 단행된다고 하여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집세의 하락이다. 전세와 월세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75%에 달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하면서 집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세의 하락은 1998년 물가의 가장 큰 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998년 1~4월의 물가는 1997년 같은 기간 대비 8.9% 상승하였다. 향후 이

러한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를 지속하면서 1998년 연평균 물가는 8.5% 전후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가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연초에 극심했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의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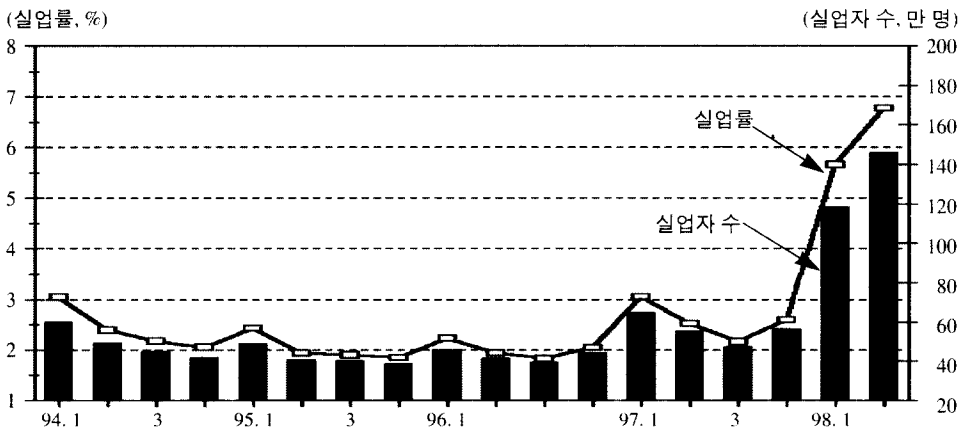
### 실업 증가로 고용 불안 점진적 확대

최근 반 년간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즉, 15년 이상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45만 명 내외의 실업자와 2.5% 수준을 하회하던 실업률이 1997년 11월부

터 급등하였다. 1998년 4월 현재 실업자 수는 143만 명에 실업률 6.7%(계절 조정 6.1%)를 기록하였고 5월에도 실업자 수가 140만 명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 급증은 먼저 외환 및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기업 도산과 휴폐업이 확산되면서 실직자가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더해 희생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실행된 희망 퇴직, 권고 사직 형태의 실업 또한 크게 늘어났다. 한마디로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정부 주도의 단기간내 기업 구조 조정, 금융 산업 구조 조정 등 경제 구조 조정이

〈그림 5〉 최근의 실업률 및 실업자 수 추이





대두되면서 전직 실업이 급증한 것이다.

한편, 최근의 급격한 고실업 양상도 실제적 고용 불안 확대를 과소 반영하고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 먼저 1997년 상반기에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여성 인력이 올해 들어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대거 퇴출하였다. 1997년 상반기 5%대를 초과했던 여성 경제 활동 인구 증가율이 올 4월까지 4% 이상 크게 감소하면서 실업 인구 추산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더불어 구직 활동을 단념한 실망 실업자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체 경제 활동 인구 증가율도 -1.0%대의 감소세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근로 시간과 소득 측면에서 불완전 취업자로 평가될 수 있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금년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10만 명

을 초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90년대 연평균 4% 내외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금년에는 1/4분기에 5.3%에 이어 4월에는 8.8%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만일 이상의 세 가지 요소만을 전년 동월비로 추산하여 실업자로 포함시켜 환산하는 경우 4월 현재 실업자 수는 224만 명,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가 지속되어 신규 실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도산에 따른 기존 취업자의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도산에 이르지 않는 기업들도 경영 실적이 악화되어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대기업을 대상으로 퇴출 대

〈표〉 실업률 과소 평가 요인별 최근 추이

(전년 동기 대비, %)

	1996년	1997년				1998년	
		1/4	2/4	3/4	4/4	1/4	4월
경제 활동 인구	1.9	3.4	2.5	1.5	0.6	-1.0	-1.2
여성	2.5	5.8	4.3	2.4	0.5	-4.1	-4.3
비경제 활동 인구	1.8	-0.7	0.3	1.7	3.1	5.6	6.2
농림어업 취업자	-5.4	-1.2	-2.7	-3.6	-5.7	5.3	8.8
무급 가족 종사자	-1.4	-0.4	-3.4	-3.5	-3.5	8.4	10.5

상 기업을 선정할 후 정리 절차를 조속히 실행하는 정책도 해당 기업의 대대적 인원 감축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더욱이 경영상 이유와 해고 회피 노력을 전제로 하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M&A하면서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등 정리 해고의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M&A 전후로 정리 해고를 할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199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는 올해에도 연중 확대 지속될 것이다.

한편, 1997년까지 꾸준한 고용 흡수 역할을 담당해오다 올해 들어 감소세로 반전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금융 경색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인한 건설업의 고용 흡수력 감소를 중심으로 하여 연중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의 기타 서비스업들도 내수 불황 지속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확대됨으로써 전체 취업자의 68%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로 확대된 3차 산업 종사자마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로 인해 1998년 하반기에는 취업자 감소폭이 -5%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하반기에 취업자 감소율이 더욱 커지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지표의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들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즉 비경제 활동 인구로의 퇴출자 증가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농림어업 취업자 급증, 무급 가족 종사자로의 흡수 증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체감 고용 불안은 하반기에 더욱 크게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지표 상의 실업률은 소폭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8년의 실업률은 2/4분기 6.8%로 상반기에 6.3%를 기록한 이후 하반기에는 7.1% 수준을 보여 연평균 6.7%(실업자 수 143만 명)대로 전망된다. ■